

| 기획논문 |

## 김지하와 한국 그리스도교 사상\*

Kim Ji-ha and Korean Christian Thought

조현범

Cho, Hyeon-Beom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목차 |

1. 서론
2. 김지하와 장일순: 천주교의 사회적 가르침
3. 김지하와 서남동: 개신교 민중신학의 태동
4. 결론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45347).

## |국문 초록|

한국의 민주화운동 시기에 대표적인 저항 시인이자 문화운동가였던 김지하는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었다. 그가 주창한 민중사상과 생명사상은 다양한 문학, 철학, 종교, 사상을 품고 있다. 이 글은 김지하의 사상과 관련하여 과거에 많이 조명되지 않았던 부분에 주목하였다. 즉 김지하가 문학 활동과 사회운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교 사상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또 반대로 김지하의 문학적 상상력은 한국 그리스도교 사상에 어떤 자극을 주었는지를 다루었다. 그래서 김지하와 한국 그리스도교 사상이라는 주제 아래 김지하가 반독재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거쳤던 사상적 변화, 그리고 그리스도교 사상과의 접점을 두 가지 사례로 살펴보았다.

첫째, 김지하는 일생토록 스승으로 모셨던 장일순이 천주교 원주교구에서 이끌던 평신도 그룹에 참여하여 천주교의 사회적 가르침에 대하여 학습하였다. 그 과정에서 김지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근대 산업사회의 부정적인 문제들에 대한 교황 회칙 등을 읽었다. 그리고 이러한 독서 경험을 자신의 문학과 사회 활동의 자양분으로 삼

았다. 김지하가 받아들인 천주교의 사회적 가르침은 그의 작품들에 잘 반영되어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비어」, 「금관의 예수」, 「장일담 메모」 등이다. 둘째, 김지하가 세속 권력과 그리스도교 신앙의 대결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작품들은 한국 개신교 신학에 영향을 끼쳤다. 특히 한국 개신교 신학자 서남동은 김지하의 시를 읽으면서 한국의 실천신학으로서 민중신학을 구상하였다. 그리고 서남동은 김지하를 민중신학자라고 부를 정도로 김지하의 문학 작품이 지닌 사상적 의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 주제어

김지하, 장일순, 서남동, 천주교, 사회적 가르침, 개신교, 민중신학

## 1. 서론

김지하(1941~2022)는 언제나 시인이었다. 시인의 마음으로 한국 민중의 질곡과 고난을 감싸 안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였다. 시인의 분노로 민중을 억압하는 권력자들을 질타하였고 다른 사람의 노동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을 미워하였다. 또 시인의 상상력으로 세상과 우주의 이치를 꿰뚫고자 하였다. 그러나 김지하의 문학적 형상화 작업이나 저술들 속에는 자신이 섭렵하였던 다양한 사상적 요소들이 스며들어 있다. 종교와 관련지어 보자면 동학을 필두로 하여 강증산의 해원사상, 민중불교 사상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김지하가 그리스도교 사상으로 부터 받았던 영향에 대해서 논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김지하와 그리스도교 사상의 상호 연관성을 묻는 작업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이 글은 김지하가 자신의 문학 세계를 구축하고 독재정권을 반대하는 저항 시인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교 사상이 어떤 역할을 하였고, 이어서 반대 방향으로 김지하가 이루었던 저항문학으로서의 성취가 한국 그리스도교 신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먼저 김지하가 원주에서 장일순의 지도 아래에 천주교의 사회사상 혹은 사회적 가르침에 관한 문헌들을 읽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받은 영향을 다룰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김지하의 문학적 상상력이 한국 개신교 신학에 미친 영향을 추적하고자 한다. 이것은 주로 한국 개신교 민중신학을 체계화한 대표적인 신학자 서남동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김지하가 품었던 생각과 사상을 현대 한국 사상사의 지평 속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리라 기대한다.

## 2. 김지하와 장일순: 천주교의 사회적 가르침

김지하는 장일순을 처음 만난 것을 1961년 2월로 기억하였다.<sup>1</sup> 그는 1960년 4월 혁명 이후 미학과의 문리대 이전과 민족통일연맹(민통) 결성 등 혼란스러운 학내 상황을 겪은 뒤 부모님이 계신 원주로 내려갔다.<sup>2</sup> 원주 시내의 기독교청년회관에서 열린 청년 모임에서 사회를 본 김지하는 장일순이라는 인물을 처음으로 상면했다. 당시에 장일순은 윤길중 등과 함께 혁신계 정당 사회대중당을 이끌고 있었다. 김지하는 장일순과의 만남에 대해서 “그날이 아마도 내 삶 속에 선생님이 들어오신 첫날일 것”이라고 회상하였다.

1961년 군사쿠데타 직후 장일순은 중립화통일론을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7년 형을 선고받고, 3년 동안 복역한 후 1964년 후반에 출소하였다. 출옥 후 장일순은 대성고등학교 이사장으로 복귀하였다. 하지만 1965년 6월로 예정되었던 한일협정의 정식 조인이 가까워지던 4월 원주에서는 대성고 학생들이 중심을 이룬 전국 최초의 고교생 ‘한일협정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이 일로 장일순은 이사장직을 박탈당하였다. 당시 장일순은 대성고 학생들에게 월간지 『사상계』를 소개하기도 하고, 함석헌을 강사로 초빙하여 특강 형식으로 전교생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는 등 대성고 학생들의 사회의식 형성에 영향을 끼친

---

1 김지하, 『흰 그들의 길 1』, 학교재, 2003, 372~374쪽.

2 김지하는 1955년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목포에서 부친이 일하고 있던 원주로 이사하고 원주중학교로 전학하였다. 2년 동안 원주에서 중학교를 다닌 뒤에 중동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서울로 유학하였다. 고등학교 시절에도 주말이면 원주로 가서 지냈다. 김지하에게 원주는 목포에 이어 두 번째 고향인 셈이었다.

바 있었다.<sup>3</sup>

앞서 김지하는 1964년 한일협정 반대운동으로 구속되어 형을 살다가 1965년 출옥하였다. 몇 달 뒤인 1965년 초여름 원주에서 장일순을 다시 만났다. 아마 원주 대성고 학생들의 시위가 있는 뒤의 일로 보인다. 김지하는 장일순이 4월 혁명 후 사회대중당 후보로 원주에서 출마하는 등 현실정치에 참여하는 활동을 펼쳤다가 군사쿠데타 직후 3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었다고 기억한다. 김지하가 술회하는 장일순의 당시 생각은 다음과 같다.

지금 베트남에서는 불교와 호치민 세력이 연대하고 있네. 남미에서도 가톨릭이 혁명 세력과 함께 전선에 선 데도 있어. 카밀로 토레스 신부가 그 예야. 나는 이것이 아마 새 시대의 새로운 조류일 것이라고 생각해. 지금 가톨릭에서는 1962년부터 1964년까지 2년 동안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열고 인간의 개인적 구원과 사회적 구원을 함께 추진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 아직 그 결과는 알 수 없으나 몇 년 안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 벌써 여러 해 전에 사회와 정치와 노동문제에 대한 교황의 칙서가 발표된 일이 있으니까. 감옥에서 많이 생각하고 또 나와서 생각한 것인데, 이제는 정치가 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 정당 같은 것으로는 소용없어. 종교를 우회해야 하네. 종교를 배경으로 하는 새로운 대중운동에 사활이 걸렸네. 나는 불교도 중요시하지만 우선 가톨릭, 그것도 새로운 혁신적 가톨릭시즘에 기대를 건다네. 지금 가톨릭은 어둡고 답답해. 그러나 이제 창문을 열기 시작하면 개인 구원과 사회변혁의 새로운 에너지원이 될 거야.<sup>4</sup>

3 김소남, 『협동조합과 생명운동의 역사』, 소명출판, 2017, 71쪽.

4 김지하, 『흰 그늘의 길 2』, 학교재, 2003, 81~83쪽.

장일순의 의식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지학순 주교와의 만남이었다. 로마 바티칸의 교황청에서는 1965년 3월 22일 원주교구를 신설하고 초대 교구장으로 지학순 주교를 임명하였다. 부산의 초장 본당 주임이었던 지학순 신부는 5월 29일 부산역을 출발하여 원주교구에 부임하였다. 6월 29일 원주 원동성당에서 주교 승품 및 교구장 착좌식을 거행하였다. 이어서 로마로 가서 9월 14일부터 12월 8일까지 거행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4회기에 한국 주교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고 귀국하였다. 원주교구장 지학순 주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에 따라서 자신의 사목을 도울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할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물색하다가 장일순과 만나게 되었다. 지학순 주교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에 장일순은 공의회 문헌을 공부하는 그룹을 만들고 천주교의 사회적 가르침을 교육하였다. 지학순 주교는 아직 공의회 문헌들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sup>5</sup> 일본에서 일본어로 번역된 공의회 문헌들을 들여와서 장일순에게 번역을 의뢰하였다.<sup>6</sup> 이렇게 하여 지학순 주교와 장일순은 개인의 영혼 구원만을 중시하던 과거의 천주교를 벗어나서 변화하는 현대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는 새로운 천주교를 만들기 위하여 원주교구를 터전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한편 원주교구에서 장일순을 중심으로 공의회 문헌을 학습하는 모임이 있다는 소식은 1967년 무렵 김지하에게도 알려졌다. 폐결핵이 심

5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들이 정식으로 한국어로 번역 간행된 것은 1969년의 일이었다. 박정일, 「개정판을 펴내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6 백효민, 「장일순 안의 가톨릭시즘」, 『교회사연구』 58, 한국교회사연구소, 2021, 208쪽.

해지자 김지하는 1967년 2월부터 1969년 6월까지 서대문 역촌동 포수 마을에 있는 역촌동 서대문시립병원의 폐결핵 요양원에 입원해 있었다. 어느 겨울에 선배 한기호가 요양원으로 찾아와서 장일순의 근황을 알려 주었다. 지금 원주에서 후배들과 함께 새로운 진보적 가톨릭시즘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열린 공의회에서 2년 동안 검토한 사회개혁의 메시지와 방법론, 신학적 배경을 정리한 문건들이 속속 출간되어 원주의 장일순이 후배들과 함께 공부 중이라는 소식이었다.<sup>7</sup> 퇴원 후 김지하는 원주에서 머물 때 장일순의 공부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가톨릭 센터 한 작은 방에 장일순과 젊은 그들이 모여 있었다. 십여 명 될까? 책상 위에 당시 교황 바오로 6세의 민족의 발전 촉진에 관한 회칙을 놓고 공부하고 있었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귀 기울여 들으니 텍스트의 착가라앉은 침착성 뒤에 수많은 논쟁과 토론과 노선 선택의 갈등이 개재한 것 같았고, 그 논리의 여유로움은 이천 년 역사와 조직의 방대함과 치밀함에 대한 자부심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sup>8</sup>

그러나 김지하는 장일순의 공의회 문헌 공부 모임에 곧장 합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69년부터 1970년 상반기까지 직장 생활, 시인으로서의 등단, 시작 활동, 연극 연출 활동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기 때문이다. 1969년 8월에 ‘코리아 마케팅’이라는 회사에 카피라이터

---

7 김지하, 『흰 그들의 길 2』, 148쪽.

8 위의 책, 148~149쪽.



로 취직하여 넉 달 동안 직장을 다녔다. 이어서 11월에는 『시인』 11월호에 시 「황톳길」 등을 발표함으로써 시인으로 등단하였다. 1970년에는 『사상계』 5월호에 「오적(五賊)」을 발표하였다. 또한 풍자극 「나폴레옹 꼬낙」의 연출을 맡아 무대에 올리려고 하였으나 하루 전인 6월 20일에 체포되고 말았다.

1970년 11월 13일에는 전태일의 분신 사건이 벌어졌다. 장례식 이후 이어진 대학가의 시위와 추모 행사 뒤에 김지하는 원주로 내려가서 앞으로의 운동 방향에 관하여 장일순과 의논했다. 장일순은 자기 집에 머물면서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권하였다. 김지하는 원주 봉살미 아래 봉산동 장일순의 자택에 머물던 무렵에 교황이 발표한 여러 회칙과 방대한 공의회 문헌들을 읽으면서 지냈다고 술회하였다.<sup>9</sup> 김지하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1970년 겨울과 1971년 봄에 김지하는 장일순의 지도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천주교의 사회적 가르침을 공부하였다.

훗날 1975년 5월 3일에 발표된 「양심선언」<sup>10</sup>에서 김지하는 자신이 학습한 천주교 문헌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나의 경우 신과 혁명의 통일적 영상은 요한 23세의 「어머니와 교사」가 ‘지상 양식의 기적을 통해 천상 양식의 마련을 예고’하던 예수님의 빵의 신비를 지적함으로써 한층 분명하여지고, 현대의 해방신학의 보고들, 그리고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의 교황들의 칙서 및 그 이전의 「레룸 노바툼」, 「콰드라게시모 안노」 등의 회칙 등으로 인하여 더욱 구체화되어 왔다.”<sup>11</sup>

9 김지하, 『흰 그들의 길 2』, 184쪽.

10 이 「양심선언」은 김지하가 감옥 밖으로 내보낸 옥중 수첩을 토대로 조영래가 집필하였다고 한다.

이상에서 언급된 천주교 문헌들을 시대순으로 나열하며 다음과 같다. 먼저 「레룸 노바룸(Rerum Novarum, 새로운 사태)」은 「노동헌장」라고도 불리며 1891년 레오 13세 교황이 반포한 문헌으로서 사회 문제를 다룬 최초의 교황 회칙이다. 가톨릭 사회운동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고, 사회주의를 반대하여 사유재산제도를 옹호하면서도 노동자의 자기방어 권리로써 노동조합 결성을 권장하였다. 다음으로 「콰드라게시모 안노(Quadragesimo Anno, 사십주년)」는 「레룸 노바룸」 반포 사십 주년을 기념하여 1931년 비오 11세 교황이 반포한 문헌인데, 역시 사회 문제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인간의 평등성이라는 관점에서 계급 문제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회칙이다. 이어서 1961년에 요한 23세가 반포한 회칙 「어머니요 스승(Mater et Magistra)」은 천주교가 주장하는 사회정의의 개념을 재정립한 문헌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앞서 장일순이 원주에서 젊은이들과 학습하였다는 바오로 6세의 회칙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Progressio)」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 뒤인 1967년에 나온 것으로, 세계의 인류 공동체는 서로 협력하여 빈부의 격차를 없애고 서로 형제처럼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문헌이다. 그래서 서구 사회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비서구 지역에 대해 자행한 식민주의 수탈을 비판하고 저개발국가의 제반 문제들에 지적과 해결 방안을 담고 있다. 이러한 교황 회칙들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들은 1960년대 말부터 한국 천주교가 사회 참여에 눈을 뜨게 되는 동력을 제공하였다.<sup>12</sup>

11 김지하, 『남녘땅 뱃노래』, 두레, 1985, 54쪽.

12 강인철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포함하여 역대 교황의 사회적 가르침이 담긴

전태일의 분신을 계기로 한국의 노동 현실을 자각한 김지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들과 각종 교황 회칙들을 장일순의 공부 모임에서 함께 학습하면서 천주교의 사회적 가르침을 흡수하였다.<sup>13</sup> 그리고 이것은 김지하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운동가로서의 감수성, 민중 지향적인 사고 등과 결합하면서 폭압적인 군사정권과 반민중적인 경제 질서를 비판하는 에너지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로 출현한 김지하의 문학 활동이 바로 1972년 4월 천주교에서 간행하던 종합월간지 『창조』에 발표된 연작시 「비어」의 제3연 ‘육혈포 숭배’, 1973년 원주 가톨릭회관에서 공연된 연극 「금관의 예수」, 그리고 1974년의 옥중 메모에 적힌 「장일담」 구상이다. 이들 작품에는 김지하가 습득한 그리스도교의 비판적 사회 인식이 녹아 있다. 「비어」와 「장일담」은 개신교 민중신학의 출현과 관련이 깊으므로 다음 장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금관의 예수」에 관하여 논하도록 하겠다.

회곡 「금관의 예수」는 1971년 겨울 한국의 소도시에서 있는 어느 성당을 배경으로 가난으로 고통받고 사회적으로 냉대를 당하는 거지, 문둥이, 창녀,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신부, 교회 공사를 따내어 배를 불리는 음탕한 사장, 사회적 약자들의 신산한 삶을 동정하며 그들을 위한

---

회칙들이 한국어로 번역 간행된 시기를 정리하면서 1965년부터 1973년까지를 한국 천주교가 사회 참여에 나서게 되는 학습과 계몽의 시기로 표현한 바 있다. 강인철, 「한국 교회의 사회 참여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사연구』 25, 한국교회사연구소, 2005, 17~20쪽.

13 김지하는 1971년 부활대축일에 프란치스코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미 김지하가 공의회 문헌과 각종 교황 회칙들을 학습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원주 단구동 성당 주임 이영섭 신부는 별도의 예비자 교리 학습을 부과하지 않고 그대로 세례를 주었다. 김지하, 『흰 그들의 길 2』, 188쪽.

싸움에 나서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수녀 등을 등장인물로 내세워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그러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교회를 질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예수가 갑자기 살아나서 문동이를 설득하여 금관을 벗기게 하고 억압당하는 민중과 함께 불의와 부패와 빈곤과 악을 물리치는 투쟁에 나서려고 하지만, 신부와 사장과 순경이 금관을 다시 빼앗아 예수의 머리에 씌워 버림으로써 종전대로 굴어져 버린다는 것이다.

원래 「금관의 예수」는 가톨릭 문인 이동진이 처음 쓰고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김지하에 의해서 마무리된 작품이다.<sup>14</sup> 이동진의 원 대본은 극단 '상설무대'가 1972년 1월 21일부터 2월 10일 까지 서강대학교 운동장의 야간 야외공연으로 초연한 것이었다.<sup>15</sup> 하지만 이동진의 원작은 김지하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sup>16</sup> 김지하 본인도 “가톨릭 쪽 사람 이동진이 이미 플롯을 세운 위에 내가 이전에 쓴 「구리 이순신」과 오스카 와일드의 동화를 끌어들여 대폭 뼈대를 수정하고, 이종률과 우리 쪽 멤버들이 대거 참여해 연습 과정에서 ‘어렌지’를 과감하게 행함으로써 거의 새 작품이 되었다”고 말하였다.<sup>17</sup>

14 박영정, 「1970년대 기독교 연극 연구」, 『국제어문』 21, 국제어문학회, 2000, 174쪽.

15 이동진, 『희곡 금관의 예수』, 해누리, 2022, 5쪽.

16 이동진의 원래 희곡 대본과 김지하와 동료들이 개작한 「금관의 예수」를 비교하면 그 내용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김지하의 「금관의 예수」는 김지하, 『민족의 노래 민족의 노래』, 동광출판사, 1984에 실려 있으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오픈 아카이브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17 김지하, 『흰 그들의 길 2』, 202쪽.

「금관의 예수」에는 김지하가 장일순과 함께 천주교 문헌을 학습한 흔적이 여러 군데 나타나 있다. 먼저 제1장 후반부에는 신부와 수녀가 나누는 대사가 나온다. 수녀가 창녀 홍 막달레나가 와서 고해성사를 청한다고 하자, 신부는 마뜩잖은 어조로 시간이 없다며 다음에 오도록 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사회정의평화위원회 임원들의 면담에 대해서도 교회는 정치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면담을 거절한다. 그러자 수녀는 신부의 언동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수녀: 문둥이, 거지, 도둑, 강패, 그리고 창녀들, 날품팔이 일꾼들, 그 사람들도 모두 천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사람들을 특히 사랑하셨습니다.

신부: 아니, 날 가르칠 셈이요? 어떻게 데모는 안 돼요.

수녀: 「어머니와 교사」, 「지상의 평화」, 공의회의 모든 결정들, 교황의 여러 가지 말씀들, 사회정의 실현에 관한 주교회의의 결정들, 이 모든 것이 공연한 이야기들인가요?

신부: 시간이 없다. (일어서며 손목시계를 본다.)<sup>18</sup>

여기서 교황 회칙과 공의회 문헌들을 나열하며 신부를 비판하는 수녀의 목소리는 바로 김지하 자신의 목소리이기도 하였다. 1970년 하반기부터 1971년 봄까지 장일순과 함께 공의회 문헌 등을 학습한 결과가 회곡 「금관의 예수」에서 수녀의 목소리로 등장하고 있다.<sup>19</sup> 교회가 소외

18 김지하, 『민족의 노래 민중의 노래』, 100쪽.

19 이동진의 회곡에는 위에서 인용한 대사들이 들어 있지 않았다. 그다음의 대사들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김지하의 창작으로 보아야 한다.

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은 1960년대부터 천주교 내부에서 생겨나는 자기비판의 목소리인데, 김지하는 「금관의 예수」에서 이러한 점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금관의 예수」에는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김지하는 장일순과의 학습에서 천주교의 사회적 가르침을 받아들였지만, 사회적 구원의 주체성이라는 점에서는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의 신학적 입장과는 그 결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해방자이자 구원자로서 예수의 역할만큼이나 민중의 주체성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문둥: 예수님, 어찌하면 예수님이 해방될 수 있습니까? 다시 살아나실 수 있습니까? 어찌하면 다시 살아나 저희들에게 오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나를 해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락과 부귀와 영예와 권세를 가까이하려는 자는 안 된다. 의롭지 못한 자도 안 된다. 용기 없는 자는 안 된다. 기도만으로도 안 된다. 기도와 함께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너와 같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핍박받으면서도 어진 사람들밖엔 안 된다. 네가 내 입을 열었다. 네가 내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내는 순간 내 입이 열렸다. 네가 나를 해방하리라.

문둥: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 너만이 날 해방하여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이룩하게 만들어 줄 사람이니라. 너의 그 가난, 너의 그 슬기와 어진 마음, 더욱이 불의에 대해 항거하려는 네 용기가 바로 그것이다. 자, 가까이 오라. 네가 내 입을 열게 했듯이 내 몸을 자유롭게 하라. 이 시멘트를 벗겨내라. 내 머리 위엔 가시관으로 족하니라. 어리석고 탐욕한 자들이 외식을 즐기며 금으로 만든 관을 내 머리에 씌웠다. 금관

이 속됨으로 나는 더럽혀지고 억눌리고 말조차 못 하는 것을 내가 해방했다.<sup>20</sup>

김지하에게 예수와 억압받는 민중은 구원의 주체와 객체로 나뉘지 않는다. 민중 역시 제도 교회의 틀 속에 갇힌 예수를 해방하는 주체로 설정된다. 그래서 예수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듯이, 예수 자신도 자신의 백성에 의해서 구원자로 해방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로써 2천 년 전 팔레스티나에서 살았던 역사적 예수와 1970년대 한국 사회의 민중은 구원과 해방의 서사에서 상호적인 주체로 인식된다. 이러한 점은 김지하가 일방적으로 그리스도교 사상을 흡수하였다기보다는 한국 민중의 현실이라는 맥락 속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소화하였다는 점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고 하겠다.

### 3. 김지하와 서남동: 개신교 민중신학의 태동

김지하는 1972년 천주교에서 발행하는 종합월간지 『창조』 4월호에 풍자시 「비어(蜚語)」를 발표하였다. ‘소리 내력(來歷)’, ‘고관(尸觀)’, ‘육혈포(六穴砲) 숭배’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비어」가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여, 사장 유봉준 신부가 3월 18일에, 주간 구중서가 3월 29일에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었다. 경찰은 『창조』 4월호를 판매 금지시켰다. 그리고 이 일로 유봉준 신부와 구중서 주간을 사표를 내

---

20 김지하, 『민족의 노래 민중의 노래』, 133~134쪽.

게 되었다. 그리고 잡지 『창조』는 1972년 11월에 폐간되었다. 『창조』는 1933년 6월 10일에 창간되었던 천주교 잡지 『가톨릭 청년』이 일제의 강압에 의해 1936년 12월 자진 폐간했다가 해방 후인 1947년 4월 복간되어 1971년 9월 제호를 『창조』로 바꾸어 월간 종합지로 다시 출발한 잡지였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김지하의 시 「비어」로 촉발된 필화사건으로 폐간된 것이었다. 그러나 김지하의 시는 잊히지 않았으니, 같은 해인 1972년 4월 21일에 발행된 일본의 주간지 『주간(週刊) 아사히(朝日)』에 소개되면서 세계 각국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sup>21</sup>

「비어」의 세 번째 부분인 ‘육혈포 숭배’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어느 날 임금이 잔치를 벌인 자리에 커다란 구렁이가 서까래를 감고 틀어 서리더니 홀연 사라져 버리자 임금은 병을 얻어 배가 불러왔다. 복사(卜師)를 불러 무슨 병인지 아뢰라고 하자, 복사는 구렁이 알을 잉태하였다고 하면서 산 사람 간을 약으로 먹으면 효험을 볼 것이라고 한다. 공산당 간이 독하기로 이름 나서 특효이나 너도나도 잡아먹어 씨가 말랐으니 독하기로 가는 예수쟁이 생간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임금은 온 나라 예수쟁이가 운터서도 가장 독하기로 이름난 놈들만 골라 교회 안에 모아 놓고 배를 갈라 생간을 모두 바쳐 평소의 은혜에 보답하라고 하였다. 임금은 육혈포를 뽑아 들고 협박하다가 뒷벽 십자가에 붙은 예수상에 눈이 갔다.

“네놈들이 무얼 믿고 까부나 했더니 저걸 믿고 까불었구나. 내가 세상에서 가장 꼴 보기 싫은 것이 저 예수란 놈 꼴이겠다. 세상의 온갖 고통, 인간의

21 이미 1970년 6월에 나온 『주간 아사히』에는 김지하의 시 「오적」이 전문 게재된 적이 있었다. 이것은 2022년 6월 25일 서울 천도교 대교당에서 열린 김지하 시인 49세 추모문화제에서 김지하 시인의 일본어 작품집 편집자 미야타 마리에가 추모사에서 밝힌 것이다.



모든 고민을 짊어진 척 목수쟁이 천한 놈이 출세욕에 급급하여 천자라고  
혹세하고 비어으로써 무민하니 비웃음도 당연하고 죽는 것도 당연하다. 대  
라마 제국의 힘을 무엇쯤으로 알았더니. 믿을 것은 예수 놈이 아니라 오로  
지 육혈포뿐이로다. 짐이 저걸 당장에 육혈포로 박살 내겠으니 눈여겨서  
잘 보아라.”

임금이 예수상을 육혈포로 쏘자마자 시뵈건 피가 예수 가슴팍에서 용솟음  
치고 흘러서 온 교회에 콕 찼다. 앉아있던 야소장 천주장들이 일어서서 물  
려오자 임금이 몸을 비틀다가 구렁이 알을 낳았는데, 구렁이 알이 깨지고  
구렁이 새끼가 기어 나와 엄마하고 부르자, 질겁한 임금이 닥치는 대로 육혈  
포를 쏘며 소리를 질렀다.

“사대문을 닫아라, 출입을 엄금하라. 남김없이 체포하라. 함구령을 선포하  
라. 기갑여단을 진주시켜라. 항공기를 투입시켜라. 근왕병을 출동시켜라. 저  
놈의 빌어먹을 예수란 물건을 한 조각도 남김없이 콩가루로 만들어라.”

소총과 기관총과 대포와 전차포와 비행기가 사면에서 예수상을 철통같이  
에워싸고 마구잡이로 쏘는데, 하도 조그만 물건이라 적중을 못 시키고 저희  
끼리 쏘아대서 죽고 죽이고 부시고 부서지고 망가뜨리고 망가져서 모조리  
한꺼번에 왕창 망해 버렸다는 이야기.<sup>22</sup>

김지하가 「비어」를 발표하고 2년이 지난 뒤인 1974년 7월 23일  
부터 8월 4일까지 세계기독교협의회(WCC)의 ‘신앙과 직제 위원회  
(Commission on Faith and Order)’ 회의가 아프리카 가나에서 열렸  
다. 당시 기독교 장로회 소속 목사이자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학장이었  
던 서남동은 ‘신앙과 직제 위원회’의 위원 자격으로 이 회의에 참석하

---

22 김지하 외, 『한국문학 필화작품집』, 황토, 1989, 37~41쪽.

였다. 스위스 개혁신교회 목사였던 한스-루디 베버(Hans-Ruedi Weber) 박사는 7월 25일 저녁에 카메룬 예수회의 앵겔베르트 임벵(Engelbert Mveng, 1930~1995) 신부와 공동발표를 하였는데 그 주제는 「여러 문화에 있어서의 십자가(The Cross in Many Culture)」였다. 서남동의 술회에 따르면 한스 베버 박사의 발표는 신약성서에 기록된 예수의 십자가형 처형 사건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를 다룬 것이었다. 그런데 베버 박사는 김지하의 「비어」에 실린 ‘육혈포 숭배’를 소개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였다.<sup>23</sup>

서남동은 베버 박사의 발표를 통해서 김지하의 시 「비어」를 처음 접하였다. 그리고는 귀국하는 과정에서 일본에 들러 김지하의 시를 구해서 읽었다고 한다.<sup>24</sup> 서남동은 1975년 『기독교사상』 2월호에 실린 「예수·교회사·한국교회」라는 글에서 베버 박사의 발표를 소개하였다. 그러면서 김지하의 ‘육혈포 숭배’에서 지상의 권세와 십자가의 대결이 가장 극적으로 묘사되었으며, 김지하의 시가 보여 주는 묵시문학적인 문체는 눌린 자의 비전이라고 해석하였다.<sup>25</sup>

서남동은 민중이라는 실체를 자신의 신학의 중심 과제로 설정한 것은 1974년부터라고 회고하였다. 그리고 1975년에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퇴수회에서 「예수와 민중」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강연을 하였는데, 이것

23 서남동, 『민중신학의 탐구』, 한길사, 1983, 24~26쪽.

24 서구 신학자들이 어떻게 김지하의 작품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서남동은 일본에서 어떻게 김지하의 시집을 구할 수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장문석, 「현해탄을 건너 ‘타는 목마름’」, 『상허학보』 58, 2020, 100~103쪽.

25 서남동, 『민중신학의 탐구』, 26쪽.

이 민중신학의 외적인 출발이라고 하였다.<sup>26</sup> 그러므로 서남동이 민중신학을 구상하게 된 것은 1974년 김지하의 시 「비어」에 실린 ‘육혈포 숭배’를 접하고 나서 이루어진 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sup>27</sup>

서남동이 김지하의 문학에서 받은 감동을 신학의 주제로 끌어오면서 민중신학의 한 축이 구성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민중신학의 형성 과정에는 다양한 흐름이 합류해 있었다. 유동식은 1970년대 한국 개신교 진보 진영에서 생겨난 신학적 조류로서 민중신학의 형성에 관여한 신학자들로 김정준, 서남동, 안병무, 김용복, 현영학 등을 들었다. 그에 따르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이는 조직신학자 서남동이었다. 그리고 성서신학자 안병무는 성서신학의 차원에서, 그리고 개신교 윤리학자 현영학은 전통적 서민 문화의 차원에서 각각 특색있게 민중신학을 전개하였다.<sup>28</sup>

민중신학이 태동하는 과정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개신교 신학계에 라틴아메리카의 해방신학 등 해외에서 새로운 신학 사조가 소

---

26 서남동, 『민중신학의 탐구』, 173쪽.

27 서남동이 김지하의 시를 처음 접한 것이 언제였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이에 대해서 문동환은 약간 다른 내용을 회고한 적이 있다. 서남동은 1970년 8월 아프리카 나이로비에서 열린 세계장로회 연맹 제22차 총회에 참석하였는데, 그곳에 모인 외국 신학자들이 한국의 김지하와 그의 시 「오적」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으며, 정작 한국의 신학자인 자신은 김지하의 시를 읽어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것이다. 문동환, 「김지하의 ‘오적’ 민중신학 재촉」, 『한겨레』, 2008년 8월 26일. 그러나 서남동 본인은 1974년 7월의 세계기독교협의회 ‘신앙과 직제 위원회’ 회의에서 김지하의 ‘육혈포 숭배’에 대한 발표를 들었던 것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김지하가 한국 민중신학의 태동에 끼친 영향을 논하면서 서남동의 회고에 방점을 두고자 한다.

28 유동식, 『한국신학의 광맥』, 전망사, 1982, 258~259쪽.

개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적인 현실에서 신학을 정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싹트었다는 점, 1970년 전태일의 분신 이후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노동 현실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1973년 5월 20일에 발표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도 한국 개신교의 사회 참여에서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서남동은 1973년 7월 8일에 간행된 『대화』지에 「한국 교회의 십자가 이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겨 한국 개신교 신학계에 새로운 신학이 태동하고 있음을 알렸다.

오늘 한국교회의 비교적 젊은 세대 중의 일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본 궤파 목사의 처형당함과, 노무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분신한 전태일 군의 결단의 경우를 오늘의 십자가의 영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십자가는 교회나 신앙을 지키는 데서 오게 되는 순교의 내용에서 나아가서 일반적인 눌린 자들을 위한 인간적인 결단으로 확대되어 가는 셈이다.<sup>29</sup>

이처럼 서남동과 안병무, 현영학을 비롯한 일군의 한국 개신교 신학자들은 1970년에 접어들어 한국의 민중이 처한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그리스도교의 복음에 따라 사회 참여를 추진하는 신학을 구상하게 되었다. 민중신학이라는 이름의 시발점을 이룬 것으로는 『기독교사상』 1975년 4월호에 실린 안병무의 「민족, 민중, 교회」, 그리고 서남동의 「민

---

29 서남동, 『전환시대의 신학』, 한국신학연구소, 1976, 90~91쪽.

중의 신학에 대하여」를 주로 꼽는다.<sup>30</sup>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서남동의 민중을 신학적 주제로 설정하는 신학을 생각하게 만든 것은 김지하의 작품이었으며, 그 영향은 1974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민중신학이라는 울타리로 묶을 수 있는 1970년대 개신교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서남동에게서 김지하의 민중 문학이 미친 영향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서남동과 김지하, 또는 김지하의 문학적 상상력이 서남동의 신학적 언어에 미친 영향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는 바로 김지하의 ‘장일담’ 구상에 대한 서남동의 신학적 해석이다.

김지하는 1975년 3월 13일 오전 9시 40분경에 서울에서 원주 집으로 가려고 정릉의 처가에서 나오다가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었다. 중앙정보부는 원주 집을 수색해서 영등포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작성했던 옥중 메모를 비롯한 기록과 책을 압수하였다. 김지하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에 검찰의 공소장에는 김지하의 원주 집에서 찾아낸 ‘장일담’ 작품 구상 메모가 등장한다.<sup>31</sup> 이 메모는 김지하가 1973년 11월 5일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민주 수호를 위한 시국 선언문’ 발표로 인하여 1974년 전남 흑산도에서 체포되고, 비상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7월 2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1975년 2월 15일 형집행정지 처분으로 출감할 때까지 영등포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쓴 것이었다.<sup>32</sup> 김지하가 1975년 5월 옥중에서 쓴 「양심선언」에서 장일담

30 이상철 외, 『민중신학, 고통의 시대를 읽다』, 분도출판사, 2018, 8쪽.

31 김정남, 「증언, 박정희 시대 12 김지하 양심선언, 『한겨레』 2012년 2월 13일.

32 검찰의 공소장에는 1975년 1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김지하가 출역하던 영등포 교도소 내 인쇄공장에서 남은 종이로 만든 소형 수첩에 붉은색 볼펜으로 메모를 작성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라는 작품을 구상하게 된 계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나는 1971년 이래 지금까지 줄기차게 전개되어 오고 있는 한국 기독교의 민권운동의 실천에 스스로 참여한 과정을 통하여 한국과 같은 가장 깊은 모순을 품은 복잡한 조건과 풍토 속에서 독특한 생명력을 발휘해 온 우리 민중의 끈덕진 저항과 혁명의 전통 속에 신과 혁명의 통일이라는 새로운 인간해방의 원리를 창출하여 제3세계에 제시할 소재(素材)의 금광맥(金鑛脈)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 소재를 현대의 해방신학의 끝로 다듬어 낼 때 ‘하느님의 선교’(Missio Dei)는 투박한 한국적 민중투쟁의 전통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바로 위와 같은 주제들, 한 종교가의 가르침과 사상적 편력의 일생을 통하여 복음서 형식으로 표현하려 한 것이 장일담이며, 소위 ‘반국가적 표현물 제작 예비 음모’에 저촉되었다고 박정권이 주장하는 시작구상(詩作構想)인 것이다.<sup>33</sup>

그러면서 김지하는 자신이 구상한 장일담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양심선언」에서 소개한 장일담 구상 메모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34</sup> 장일담은 백정과 창녀의 아들로 태어난 도둑놈이다. 그는 부자가

33 김지하, 「양심선언」, 『남녘땅 뱃노래』, 54~55쪽.

34 「장일담」 구상 메모는 중앙정보부에 압수되었고 김지하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검찰에 의해서 증거물로 제출되었을 것이다. 현재 「장일담」 구상 메모의 원본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사건의 담당 변호인이었던 홍성우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던 검찰의 공소장, 변호인의 항고장, 변론요지서, 김지하의 최후진술, 시인 구상과 문학평론가 김병익 등의 감정의견서, 제1심 판결문, 검사의 항소이유서 등에도 「장일담」 구상 메모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김지하의 변호인들이 1976년 12월 23일에 재판정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에 「장일담」 구상 메모를 설명하는 부분이 다섯 쪽 분량으로 소개되어 있다. 그 내용은 「양심선언」에 실린 것과 거의 유사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편, 『인권변론자료집 2』, 경인문

흠쳐 간 돈을 가난뱅이가 도둑질하여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실행하다가 감옥에 들어간다. 장일담은 탈옥하여 수배되고 창녀들이 있는 뒷골목에 숨는다. 창녀들에게 하느님은 바로 당신들의 썩은 자궁 속에 있다. 하느님은 밑바닥에 있다고 선언한다. 그 후 장일담은 계룡산에 들어가 해동극락교를 선포하고 네 단계 수행과 공동소유, 혁명 행동을 설교하고, 이 세상은 말세이며 곧 새 세상이 온다고 선언한다. 이후 장일담은 노동자, 농민의 무리와 더불어 마귀가 있는 서울을 향하여 깡통을 들고 진군한다. 그는 극락이란 밥을 나눠 먹는 것이며, 밥이 하늘이라고 선포한다. 장일담은 배신자 유다스의 밀고로 잡혀 죽는다. 한마디 변명도 없이 반공법, 국가보안법, 내란죄 등의 죄명을 쓰고 목이 잘린다. 처형된 장일담은 사흘 만에 부활하여 그 목이 배신자의 목을 떼고 배신자의 몸통에 붙는다. 이 기이한 결합은 복수이면서 동시에 악인까지도 구원하는 기이한 장일담의 사상을 표현한다.<sup>35</sup>

김지하 본인도 장일담이 어렴풋한 윤곽일 뿐이며 아직 미완성의 세계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 속에는 김지하가 섭렵한 다양한 사상들이 혼재되어 있다. “종교적 고행과 혁명적 행동이, 예수의 행적과 최수운, 전봉준의 투쟁이, 초기 기독교의 공동체적 생활양식에의 동경과 우리 민족의 오래고 강인한 민중운동에의 애착이, 파울로 프레이리의 피압박자의 교육 테제, 프란츠 파농의 폭력론, 블랑키스트적인 급진폭력, 그리스도교의 원죄론적인 인간관, 가톨릭의 ‘행천주(行天主)’ 사상 등과 불교의 윤회설, 임궫정, 홍길동의 활빈(活貧) 사상, 동학의 시천주, 양천주

---

화사, 2012, 271~276쪽.

35 위의 글, 55~56쪽.

사상들이 혹은 결합하고 혹은 용해되고 혹은 서로 모순하고 부딪치면서 어지럽게 교차하고 있다”는 것이다.<sup>36</sup>

그래서 장일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한다. “밥이 하늘”이라는 메시지는 동학의 제2대 교주 최시형(崔時亨)의 사상에서 영감을 얻었으며,<sup>37</sup> 득도하여 해동극락교를 선포하고 서울로 진격하는 모습은 동학농민혁명을 본뜬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그리고 무저항이 몸으로 붙잡혀 처형되고 부활하여 영혼이 되어서도 “밥을 나눠 먹자”고 외치는 모습은 그리스도교의 비폭력사상, 부활 신앙, 코이노니아 사상에 더하여 천주교의 사회적 가르침이나 해방신학의 영향이 들어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sup>38</sup> 그렇다면 민중신학의 입장에서는 장일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먼저 서남동의 말을 들어 보자.

어두운 뒷골목의 가난하고 병들고 정신착란을 일으킨 창녀의 몸에서 한 새 생명이 태어나는 눈부신 기적을 장일담은 보았다. 그 아기 새 생명의 탄생은 곧 그 자신[장일담]의 탄생이었다. 그리고 그 새 아기의 생명은 통시적(通時的)으로 공시적(共時的)으로 짓밟히고 가난하고 병들어 아픈 어둠을 온통 삼켜 버리는 새 생명이었다. 세상 죄가 만들어 낸 희생의 제물인데 그 세상 죄를 온통 흡수해 버리고 심판하고 속죄하는 속죄양이 태어난 것이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증거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남김없이 덮고 있는 죽음의 그늘이 제아무리 짙다고 할지라도 결국 새 생명의 탄생을 막지는

36 위의 글, 56쪽.

37 “밥이 하늘”은 인내천 사상보다는 최시형의 “만사지(萬事知) 식일완(食一碗)” 사상과 더 가깝다는 점을 지적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38 후루타 도미다테, 「김지하의 ‘한’ 담론」, 『종교학연구』 37, 2019, 110쪽.



못한다는 증거다. 죽음을 이기는 것이 생명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적 생명이다.<sup>39</sup>

요컨대 서남동은 한국 민중의 고난과 예수의 수난을 하나로 합류시키고 이를 신학적으로 해석해내는 것이 한국 민중신학의 과제인데, 「장일담」이 그 생생한 사례라고 보았다. 서남동은 『신학사상』 1979년 3월호에 발표한 「민중의 신학」이라는 글에서 「장일담」이 지니는 신학적인 의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탐색하였다.<sup>40</sup> 그에 따르면 한국의 민중신학은 한국의 민중 전통과 『성서』 및 교회사의 민중 전통의 합류인데, 그 합류가 1970년대에 이루어졌으며, 두 이야기의 합류를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이 김지하의 사상과 작품이라고 하였다. “그[김지하]는 그의 신학 사상을 한 담시(譚詩)의 구상 메모 「장일담」에서 보여 주고 있다. 이 담시 「장일담」 구상 메모로써 그는 가톨릭 신앙에로의 두 번째의 보다 깊은 회심을 보여 주고 있으며, 또 이로써 그는 이미 세계에서 기대의 각광을 받고 있는 민중의 신학자로 등장하게 되었다.”<sup>41</sup> 서남동이 장일담의 민중신학적 특징을 제시하는 논점들 가운데 그리스도교 사상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진술을 담고 있는 것들을 추리면 다음과 같다.

39 서남동, 『민중신학의 탐구』, 354쪽.

40 서남동이 1979년에 발표한 「민중의 신학」은 그 뒤 수정 보완을 거쳐서 1982년에 한국 신학연구소에서 펴낸 민중신학 관련 주요 문헌집인 『민중과 한국신학』에 수록되었다. 이듬해인 1983년에 나온 그의 저서 『민중신학의 탐구』에도 같은 제목으로 실렸다.

41 서남동, 「두 이야기의 합류」, NCC 신학연구위원회 편, 『민중과 한국신학』, 한국신학연구소, 1982, 272쪽.

- ① 한국의 민중 전통과 기독교의 민중 전통을 아울러 이어받는 ‘해방의 설교자’ 장일담이라는 인물의 선교의 출발점은 그의 득도(得道)인 ‘밀바닥의 일치’에서부터다. 이 사회에서 저주받고 이 땅에서 추방당한 버림받은 자들의 소굴에 들어가서 그들과 마음으로 일치하는 경험을 한다. 그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참마음, 곧 신을 만나게 된다. 이 밀바닥을 다시 뒤집으면 바로 하늘이 되고 거기에 민중의 메시아가 출현할 수 있다. 성병으로 육신이 썩을 대로 썩었고 정신착란증까지 겪한 창녀 산모가 낳은 아기, 새 생명에서 신이 출현하는 것을 보고 득도한다.
- ② 장일담의 민중신학이 내세우는 테제는 ‘신과 혁명의 통일’이다. 그 내용에는 동학과 기독교의 통일, 인간 정신의 영신적 쇄신과 사회구조의 정의적 혁명의 통일, 밀바닥과 하늘의 일치, 지상 양식(밥)과 천상 양식(자유)의 일치 등 여러 가지를 담고 있다. 이것은 마르크스 사상이 제공할 수 없고 그[김지하]는 이 체계를 방식을 가톨릭 신앙에서 발견했다고 한다.
- ③ 김지하는 신과 혁명의 통일을 대혁명이며 사회혁명보다 한 차원 높은 혁명이라고 말한다. 김지하의 메모 한 대목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내 낙원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이 땅으로부터 시작하여 저 서울을 지나 세계로 우주로 하늘로 그리고 모든 세월의 저편으로 이어져 나가는 바람과 같은 이 외줄기 흰 길이다. 길을 곧 극락이며 나는 이 길을 가는 나그네다. 여기에 장일담 혁명의 차원이 나타난다.
- ④ 장일담의 신학은 한의 신학이다. 장일담의 민중신학은 민중의 한을 풀어주고 위로하는 한의 사제적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며, 민중이 자기 정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해방과 구원을 찾고 있다.
- ⑤ 장일담은 1970년대 한국에 태어난 나사렛 예수인 셈이다. 그의 출생과 행각, 해방의 설교, 재판과 사형과 부활의 전기가 예수의 생애의 복사다.
- ⑥ 장일담은 범죄인으로 참수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여 그의 머리가 배신의 목을 떼고 그 몸통에 붙는다. 이러한 기이한 결합은 악인까지도 중당

에는 구원한다는 장일담의 사상이다.

- ⑦ 장일담의 해방의 복음은 신학의 토착화를 결정적인 중요 과제로 삼는다. 김지하는 예수의 이야기인 복음서와 민중의 한의 창인 판소리를 결합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적 민중적 신학을 형성해 보려고 한다. 판소리 사설인 「장일담전」은 예수의 이야기의 위음인 「요한복음서」의 진행과 흡사하다.<sup>42</sup>

서남동은 민중신학의 과제를 성서의 민중 동기와 한국의 민중 전통을 결부시키려는 것이고, 그런 결부를 통하여 비로소 ‘한국 신학’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서남동에게 이러한 지향이 싹트는 계기는 바로 김지하의 민중 문학을 접하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김지하를 민중신학자라고 부르며, 김지하의 작품 구상에 등장하는 장일담이 바로 1970년대 한국에 태어난 나사렛 예수라고 선언하였다.

민중신학자 서남동은 김지하의 문학적 영감에서 받은 영향을 자신의 신학적 연구에 녹여내는 작업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적 지식인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1974년 11월 27일 ‘민주 회복 국민 선언’에 참여하였고, 계속 독재정권에 저항하였다.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3.1 민주 구국 선언’에 서명하면서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수직에서 해직되고 함석헌, 안병무, 문동환 등과 함께 투옥되어 1977년 12월 31일까지 수형생활을 하였다. 1980년에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연루자로 다시 체포되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5개월 동안 옥고를 치른 뒤에 형 집행 정지로 석방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서남동으로 대표되는

---

42 위의 글, 272~275쪽.

한국 개신교 민중신학의 형성과 현실 참여에는 김지하의 민중 문학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

#### 4. 결론

이상에서는 김지하와 그리스도교 사상이라는 주제 아래 김지하가 반독재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거쳤던 사상적 변화와 그리스도교 사상의 접점을 두 가지로 살펴보았다. 먼저 김지하는 필생의 스승 장일순이 이끌던 원주 그룹에 참여하여 천주교의 사회적 가르침을 학습하였다. 그 과정에서 김지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그리고 근대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천주교의 입장이 담긴 교황 회칙들을 읽고 민중운동의 자양분으로 삼았다. 김지하가 받아들인 천주교의 사회적 가르침은 그의 작품, 특히 「비어」, 「금관의 예수」, 「장일담」 구상에 투영되어 있다. 둘째로 김지하가 세속 권력과 그리스도교 신앙의 대결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작품들이 한국 개신교 신학자 서남동에게 영향을 주어 민중신학이 태동하는 계기가 만들어졌음을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필자의 역량 부족으로 다루지 못한 점, 두 가지를 거론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김지하를 그리스도교 사상과 관련지어 다루기 위해서는 그 밖에도 검토할 만한 점들이 몇 가지 더 있다. 우선 김지하가 라틴아메리카 해방신학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도 다룰 필요가 있다. 김지하는 1975년의 「양심선언」에서 신과 혁명의 통일이라는 주제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현대 해방신학의 보고들”을 꼽았다. 그러면서 몇 명의 이름을 열거하였다. 프레데릭 헤어조그(Frederick

Herzog, 1925~1995),<sup>43</sup> 제임스 콘(James Cone, 1938~2018),<sup>44</sup> 리처드 샤울(Richard Shaull, 1919~2002),<sup>45</sup> 폴 레만(Paul Lehmann, 1906~1994),<sup>46</sup>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 1926~ ),<sup>47</sup> 요한 뱍티스트 메츠(J.B. Metz, 1928~2019),<sup>48</sup> 하인츠 에두아르트 토티트(Heinz Eduard Tödt, 1918~1991),<sup>49</sup> 우고 아스만(Hugo Assman, 1933~2008),<sup>50</sup>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hbur, 1892~1971),<sup>51</sup> 디트

43 미국 듀크대학교에 재직하였던 조직신학자이자 그리스도 연합교회 목사였으며, 해방신학을 학문적으로 탐구하였다.

44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한 흑인 신학자로서, 흑인 신학과 흑인 해방신학의 주창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45 미국의 신학자이며 콜롬비아에서 장로교 선교사로 활동하였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에큐메니즘을 강의하였다.

46 그리스도교 윤리학을 전공한 미국인 신학자로서 시민적 자유 옹호론자였으며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프레데릭 헤어조그의 박사 학위 논문을 지도한 스승이었다. 매카시즘에 반대하여 비상 시민적 자유권 위원회의 의장으로 활동하였다.

47 독일 개신교 신학자이며 튀빙엔 대학교 신학대학 명예교수로 있다. 20세기 후반 대표적인 독일 개신교 조직신학자이다. 해방신학의 형성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김지하의 『양심선언』이 발표되고 세계 각지에서 김지하 구명운동이 벌어졌을 때, 김지하의 사상과 신앙을 보증하는 성명서에 서명하였다.

48 독일 천주교 신학자이며, 칼 라너 밑에서 하이데거와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을 공부하였다. 위르겐 몰트만의 영향으로 정치신학을 발전시켰다. 몰트만과 함께 김지하 구명을 위한 성명서에 서명하였다.

49 독일 개신교 신학자이며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조직신학 및 사회윤리학 교수를 지냈다. 디트리히 본회퍼의 전집을 간행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50 브라질 태생의 천주교 신학자로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해방신학을 발전시켰다.

51 미국 개신교 신학자이며 윤리학자이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현대 정치와 사회 문제에 발언하였으며, 미국 노동자들의 비인간적인 노동 조건과 환경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저서로 유명하다.

리히 본회퍼(Dietrich Bonhöffer, 1906~1945)<sup>52</sup> 등이 그들이다. 이들이 모두 해방신학에 관련된 인물들은 아니다. 그리고 김지하가 이들의 저서를 읽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1970년 연말 원주에서 장일순의 지도를 받으면서 김지하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이나 각종 교황 회칙들만이 아니라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다양한 기독교 사상가들을 배웠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김지하가 거명한 신학자들의 영향을 조사하는 것은 1970년대 한국 그리스도교 사회운동에 영향을 준 사상적 흐름을 연구하는 데에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1975년 이후에 김지하는 옥중 독서를 통하여 사상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민중사상에서 생명사상으로의 변화라고 이를 만하다. 그 과정을 회고하면서 김지하는 예수회 신부이자 지질학자, 고생물학자이며 동시에 철학자였던 피에르 테야르 드 샤르댕(Pierre Teilhard de Chardin, 1881~1955)의 주저 『인간현상(Le Phénomène Humain)』<sup>53</sup>을 여러 번 언급하였다. 진화론과 천주교 신앙을 조화시켜 우주적 진화철학을 구상한 테야르 드 샤르댕의 사상은 분명히 기독교 사상의 틀을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sup>54</sup>

52 독일 루터교회 목사이자 신학자이며 나치즘을 반대하는 운동가였다.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하였다가 체포되어 교수형을 당했다.

53 Pierre Teilhard de Chardin, *Le Phénomène humain*, Paris: Seuil, 1955(양명수 옮김, 『인간현상』, 한길사, 1997).

54 한국 신학계의 안테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서남동은 세계 신학계의 새로운 흐름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테야르 드 샤르댕의 저서를 읽었으며 진화론과 기독교 신앙을 일치시키려는 시도로 해석하였다. 1969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간행하는 학술지 『현대와 신학』 제6집에 발표한 서남동의 논문 「테야르 드 샤르댕의 '오메가 포인트」는 1976년 한국신학연구소에 간행한 논문집 『전환시대의 신학』에 다시 수록되었다.

하지만 김지하가 받아들인 테야르 드 샤르댕의 생각은 김지하가 이름 붙인 ‘우주 진화의 삼대 법칙’에 국한된 것이었다. 김지하는 그것을 우주 진화의 내면에는 의식의 증대가 있고, 우주 진화의 외면에는 복잡화가 있으며, 군집(群集)은 결국 개별화하여 각각의 특수성과 자유를 실현한다는 말로 요약하였다.<sup>55</sup> 김지하는 함석헌의 권유로 테야르 드 샤르댕의 저서를 읽었으며, 이를 통하여 영성과 생명을 연결하는 중요한 지침을 얻었다고 한다.<sup>56</sup> 그러나 김지하는 테야르 드 샤르댕으로부터 받은 사상적 영감을 더 이상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는다. 그나마 우주 진화의 삼대 법칙에 대한 설명도 동학의 시천주 사상의 해안을 설명하기 위한 매개 역할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에서는 김지하의 생명사상과 테야르 드 샤르댕의 관계를 다루지 않았다. 그렇지만 김지하가 자신의 생명사상을 구상하고 정립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았던 서구 사상의 편린들을 모아서 구체적인 영향 관계를 밝히는 것은 김지하의 생명사상을 사상사적으로 탐구하는 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 논외로 하였던 김지하의 생명사상과 그리스도교 사상의 관계는 차후에 한국 철학계의 연

55 테야르 드 샤르댕의 저서에는 우주 진화의 삼대 법칙이라는 용어나, 의식의 증대, 복잡화, 개별화를 도식화한 설명이 나오지 않는다. 다만 후기에서 “① 복잡성-의식의 우주적 법칙(*la loi cosmique de complexité-conscience*), ② 인간의 첫 출현 또는 반성의 개별적 단계(*la première apparition de l'homme ou le pas individuel de la réflexion*), ③ 반성의 집단적 단계로의 고양(*la montée vers un pas collectif de la réflexion*)”을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김지하가 말하는 우주 진화의 삼대 법칙(의식의 증대, 복잡화, 개별화)는 아마 테야르 드 샤르댕의 저서를 영문판으로 읽으면서 김지하가 그렇게 정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56 김지하, 『흰 그들의 길 2』, 422쪽.

구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투고일: 2023.06.02. 심사기간: 2023.06.28.~2023.07.09. 게재확정일: 2023.07.12.



## | 참고문헌 |

- 강인철, 「한국 교회의 사회 참여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사연구』 25, 한국교회사연구소, 2005.
- 김소남, 『협동조합과 생명운동의 역사』, 소명출판, 2017.
- 김지하, 『남녘땅 뱃노래』, 두레, 1985.
- ———, 『민족의 노래 민중의 노래』, 동광출판사, 1984.
- ———, 『흰 그늘의 길 1, 2』, 학고재, 2003.
- 김지하 외, 『한국문학 필화작품집』, 황토, 1989.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편, 『인권변론자료집 2』, 경인문화사, 2012.
- 박영정, 「1970년대 기독교 연극 연구」, 『국제어문』 21, 국제어문학회, 2000. (UCI : G701:C-00056342856)
- 박정일, 「개정판을 펴내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 백효민, 「장일순 안의 가톨릭시즘, 1953~1980」, 『교회사연구』 58, 한국교회사연구소 2021. (DOI : 10.35162/rfkch.2021.06.58.193)
- 서남동, 「두 이야기의 합류」, NCC 신학연구위원회 편, 『민중과 한국신학』, 한국신학연구소, 1982.
- 서남동, 『민중신학의 탐구』, 한길사, 1983.
- ———, 『전환시대의 신학』, 한국신학연구소, 1976.
- 유동식, 『한국신학의 광맥』, 전망사, 1982.
- 이동진, 『회곡 금관의 예수』, 해누리, 2022.
- 이상철 외, 『민중신학, 고통의 시대를 읽다』, 분도출판사, 2018.
- 장문석, 「현해탄을 건넌 '타는 목마름」, 『상허학보』 58, 2020. (DOI : 10.22936/sh.58..202002.003)
- 후루타 도미다테, 「김지하의 '한' 담론」, 『종교학연구』 37, 2019.
- Pierre Teilhard de Chardin, *Le Phénomène humain*, Paris: Seuil, 1955(양명수 옮김, 『인간현상』, 한길사, 1997).

## | Abstract |

### Kim Ji-ha and Korean Christian Thought

Cho Hyeon-Beom

Kim Ji-ha, a representative resistance poet and cultural activist during the period of Korea's democratization movement, was also a figure worth noting in terms of his thought. The people's idea and the life idea he advocated embrace various literature, philosophy, religion, and thought. This article pays attention to the part that was not much illuminated in the past in relation to Kim Ji-ha's thought. In other words, it deals with how Kim Ji-ha was influenced by Christian thought in the course of his literary activities and social movements, and what kind of stimulation Kim Ji-ha's literary imagination gave to Korean Christian thought. So, under the theme of Kim Ji-ha and Korean Christian thought, I have examined the ideological changes Kim Ji-ha went through in the course of the anti-dictatorship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contact point with Christian thought in two cases. First, Kim Ji-ha participated in the layman group led by Chang Il-soon, who had been his teacher throughout his

life, in the Catholic Diocese of Wonju, and learned about the social teachings of Catholicism. In the process, Kim Ji-ha read the documents of the Second Vatican Council and the Pope's Encyclical on the negative problems of modern industrial society. And he used this reading experience as nourishment for his literature and social activities. The social teachings of Catholicism that Kim Ji-ha accepted were well reflected in his works. His representative examples are 'Bi-Eo', 'Jesus in the Golden Crown', and 'Memos of Chang Il-dam Story'. Second, Kim Ji-ha's literary works that embodied the confrontation between secular power and Christian faith influenced Korean Protestant theology. In particular, Seo Nam-dong, a Korean Protestant theologian, conceived Minjung theology as a Korean practical theology while reading Kim Ji-ha's poems. And Seo Nam-dong highly appreciated the ideological significance of Kim Ji-ha's literary works to the extent that he was called a Minjung theologian.

**Key word**

Kim Ji-ha, Chang Il-soon, Seo Nam-dong, Catholicism, Social Teaching, Protestantism, Minjung Theology